https://doi.org/10.23073/riks.2025..19.006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 연구

〈내부자들〉에 나타난 반말·존댓말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eaching Korean Honorific Expressions Using Film
: Focusing on the Use of Speech Styles in "Inside Men"

조희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언어학적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여, 담화 맥락 속에서 반말과 존댓말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높임 표현 교육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한국어 교육에서는 높임 표현을 주로 문법 규칙과 격식 구분의 틀 안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화자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되는 실제 담화 상황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중심으로 반말과 존댓말의 사용이 실제 담화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말과 존댓말은 단순한 상하 관계 표현을 넘어 권위의 재현, 거리 조절, 위협과 회유, 감정의 표현 등과 같이 복합적인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Judd의 화용 교수 모형을 바탕으로 '제시 – 관찰 및 이해 – 수용 및 개발 – 연습 – 활용'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 영화 활용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단순한 문법 지식 전달을 넘어, 맥락에 따른 언어 선택 능력과 사회문화적 인식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접근이다.

핵심어 반말, 존댓말, 한국어 높임 표현, 고급 한국어 교육, 영화 활용 한국어 수업

차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자료 분석: 영화 〈내부자들〉의 높임 표현 사용 양상
4. 교육적 적용 방안
5. 결론

1. 서론

한국어 학습자에게 '높임 표현'[1]은 학습 난이도가 높은 항목 중 하나다. 이는 높임 표현이 단순한 문법 규칙이나 어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언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말과 존댓말의 사용과 전환은 화자의 정체성, 관계의 친밀도, 사회적 위계, 감정 상태 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언어 사용의 전략으로 작용한다. 고급 수준의 학습자일수록 이러한 요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맥락에 맞는 높임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어 교육 현장은 이러한 복합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높임 표현의 기본 규칙을 설명하는 데 그치며, 실제 담화 상황 속에서 반말과 존댓말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교차하고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 특히 실생활에서는 관계의 변

• 광주여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조교수

1 본고에서는 반말과 존댓말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높임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www.kci.go.kr

화, 심리적 거리,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높임 표현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나 수업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다. 반말과 존댓말은 단순한 언어 형식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역할과 권력 관계, 정서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언어적 장치이므로,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담화 상황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Chomsky[2]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과는 다른 언어의 실제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 Hymes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문법적 정확성과 함께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 사용의 적절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3] 이후 Canale & Swain은 이를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적 능력의 네 가지 하위 능력으로 구체화하였고,[4] Savignon은 의사소통 능력을 고정된 개념이 아닌 역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는 일정 부분 동일한 상징 체계를 공유하는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협상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Canale & Swain의 네 가지 능력을 수용하면서도 수업 현장에서 이 개념의 실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습자가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5]

2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1965.

3 "우리는 정상적인 아동이 문장을 학습할 때, 그것을 단지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으로만이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것으로도 학습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대해 말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Hymes, D.H.,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B. Pride and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Harmondsworth: Penguin, 1972, p.277.

4 Canale, M. &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980, pp.20~25.

5 Savignon, S. J., *Communicative Competenc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MA: Addison-Wesley, 1983, pp.9~12.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의사소통 능력은 단순한 문법 지식의 축적을 넘어, 실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적절한 언어 사용의 전략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언어 운용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단지 어미의 변화나 한국어 높임 표현의 학습이 아닌, 언어가 구현되는 사회문화적 조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다양한 담화 상황 속에서 반말과 존댓말의 전략적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언어 사용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 선택을 통해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상황에 따른 반말과 존댓말의 화법 전환은 문법적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의 전략적 측면과 사회언어학적 인식의 발달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언어 활동이다.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단순히 표현의 정확성을 넘어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언어 형태를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말과 존댓말의 전략적 사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반말과 존댓말이 지니는 사회언어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높임 표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교육 현장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자 한다.

www.kci.go.kr

2.1. 반말과 존댓말의 사회언어학적 개념

한국어의 높임 표현은 일반적으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세 범주로 나뉘며, 이 중 상대 높임이 반말과 존댓말의 구분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반말은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관계이거나 화자가 나이 혹은 지위상 우위에 있을 때 사용되는 반면, 존댓말은 거리 유지가 필요한 관계나 공식적·공적 상황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 담화에서는 이와 같은 규범이 경직되게 적용되기보다 유연하게 실현되며, 하나의 담화 안에서도 반말과 존댓말이 교차하거나 전환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언어 현실은 단순한 문법 규칙이나 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의 정체성, 청자에 대한 인식, 상황의 맥락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반말과 존댓말은 궁극적으로 담화 속에서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전략으로 기능하며, 단순한 존중의 표현을 넘어 감정의 강도 조절, 전략적 거리 두기, 상하 관계의 재확인 및 재구성 등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의 반말과 존댓말은 '언어 변이(language variation)'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이는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구성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Spolsky는 언어 변이를 단순한 형태상의 차이가 아닌, 화자와 청자 간 관계, 사회적 지위, 공식성, 친밀도 등을 드러내는 '사회적 신호(social signal)'로 보며, 특정 언어 변이형의 선택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6] 이러한 관점은 한국어 높임 표현의 전략적 사용이 사회언어학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2. 한국어 교육에서 높임 표현의 교육 현황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높임 표현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요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교재는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교육 내용과 교수자의 수업 운영 방식을 반영하며, 수업의 구조와 목표 설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 분석은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높임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교육적 방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조망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된 교재는 『경희 한국어』, 『고려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7], 『이화 한국어』이다. 교재에서 제시된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대상으로 각 표현이 교육되는 급수와 내용 등을 분석할 것이다. '하오체'와 '하게체'의 경우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지 않거나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였더라도, '-(으)ㅂ시다'의 형태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으)ㅂ시다'의 경우 높임에 대한 설명보다는 '청유'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으)시-'의 경우 상대 높임 체계는 아니지만, 실제 대화에서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선어말 어미를 통한 주체 높임 표현이 자주 나타나므로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객체 높임의 경우 한국어 교재에서 별도의 높임 표현으로 제시되기보다는 보충 설명이나 어휘 등을 통해 제시되었으므로 제외하였다.

먼저, '하십시오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하십시오체' 교재 분석 결과

교재	급수	설명
A	초급1	동사에 붙어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정중하게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회의나 발표, 텔레비전 뉴스, 인터뷰 등 공식적인 말하기 자리에서 많이 사용된다.
B	3A	격식적인 상황에서 예의를 갖춰 말하거나 쓸 때 사용한다.

6 Spolsky, B., *Socio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김재원·이재근·김성찬 역, 『사회언어학』, 박이정, 2001, 7~8쪽.

7 『연세 한국어』의 경우 『새 연세 한국어』 교재가 출판되었으나 새로운 교재에서는 초급에서 문법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교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여 이전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8 가, 나, 다 순서에 따라 'A' ~ 'E'까지 알파벳을 부여하여 표기하였다.

www.kci.go.kr

C	1A	격식적인 상황에서 그 문장을 정중하게 끝맺을 때 사용한다.
D	1-1	This final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to explain and formally declare a certain action or state to listener.
E	1-1	-습니다 is honorific ending used after an adjective or verb to state a fact one's thought.

'하십시오체'는 'B' 교재를 제외하고 모두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었으며, 존댓말(정중하게, 예의, honorific ending)이며 격식체(공식적인, 격식적인 상황, formally)임을 설명하였다. 'A' 교재에서는 격식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예로 회의, 발표, 텔레비전 뉴스, 인터뷰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해요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2〉 '해요체' 교재 분석 결과

교재	급수	설명
A	초급 1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질문할 때 사용한다. 주로 비격식적이고 친밀한 상황에서 말한다.
B	1A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한다. 일상적이고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C	1A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현재의 사실에 대해 설명하거나 질문할 때 사용한다.
D	1-1	This informal-style final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and is used frequently in conversation with friends.
E	1-1	-아/어요 are honorific ending used to indicate politeness in informal situations, in declarative sentences, questions, and requests.

'해요체'는 대부분 교재에서 '비격식적이지만 공손한 존댓말'로 설명되며, 일상 대화나 친밀한 사이에서의 말투로 규정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형태가 존댓말이긴 하지만 '격식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손하지만 편안한 분위기의 대화 상황에서 적합한 표현이라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표 3〉은 '해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3〉 '해체' 교재 분석 결과

교재	급수	설명
A	초급 2	'동사 아/어/해'는 비격식체 '-아요/어요'의 반말로서 동사에 붙어 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를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한다. 비격식체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로 친구 사이나 선배가 후배에게 주로 말할 때 많이 사용하며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윗사람에게는 반말 대신 존댓말을 사용한다.
B	2B	반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또는 나이가 비슷한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아요/어요/여요'체에서 '요'를 빼면 된다.
C	2B	대화하는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밀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말이다.
D	2-1	The intimate style is a speech mood used to someone who is of an equal or lower status. In terms of the intimate style there are formal and informal speech levels. This form could also be used to a person of higher status if she/he is close to the speaker.
E	2-2	반말 is used a close friend or someone your junior.

'해체'는 반말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친밀한 관계나 상하 관계에서 자신이 우위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다만 'D' 교재에서는 관계가 아주 친밀하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실제 담화에서의 융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표 4〉는 '해라체'에 대한 교재 분석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표 4〉 '해라체' 교재 분석 결과

교재	급수	설명
A	초급 2	'동사(는/ㄴ)다'는 격식체 '-습/ㅂ니다'의 반말로서 동사에 붙어 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를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을 때에 사용한다. 격식체 반말로 질문할 때는 동사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니/냐?'를 사용하고 …(이하 생략). 격식체 반말 평서형'(-는/ㄴ)다'는 신문이나 보고서 등 객관적인 글에 주로 사용되며 구어적 상황에서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친구 사이에 사용할 수 있다.
B	3B	한국어의 구어와 문어의 가장 큰 차이는 문말 어미이다. 구어에서는 대화 상대, 대화 상황에 따라 '-어요', '-어', '-습니다' 등의 문말 어미가 사용되고 문어에서는 '-다'가 사용된다.
C	2B	신문 기사나 읽기 같은 글에서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할 때 사용한다.
D	2-1	The intimate style of the formal honorific final-ending in declarative setence -습니다/ㅂ니다 is '-는다/ㄴ다/다'. The intimate style of final-ending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습니까/ㅂ니까?' is '-니?' The intimate style of the imperative final-ending '-으십시오/십시오' is '-어라/아라/여라'. the intimate style of formal speech can be made to a person of a same or lower status. However it can not be used to an older person. One the other hand the intimate style form can widely be used in journals.
E	2-2	낮춤말 is used to one's junior (subordinate).

'해라체'는 'B' 교재와 'C' 교재에서 높임 표현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으며, 문어라는 용법만이 제시되었다. 이는 '해라체'가 일상 대화보다는 글쓰기나 문어체 중심의 용

www.kci.go.kr

법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재의 경우, 나와 지위가 동등하거나 낮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선어말 어미 '-(으)시-'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으)시-' 교재 분석 결과

교재	급수	설명
A	초급 1	동사에 붙어 문장의 주어를 높여서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높일 때 사용하며, '-(으)시-'가 쓰인 문장에서는 주어를 '이/가'의 높인 표현인 '께서'로 바꿔서 사용한다.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으)십니다'를 사용하고,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으)세요'를 사용한다. '먹다, 마시다'는 '드시다', '자다'는 '주무시다', '있다'는 '계시다' 등의 높임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B	2B	높임말은 문장의 주어가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 사용한다.
C	1B	문장의 주어가 되는 사람이 화자보다 사회적으로 높게 인식될 때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D	1-2	'-으시-' is the suffix which is attached to a verb stem. It is used express respect for the subject(of the sentence). There are some verbs which do not use -으시- and instead change its verb stem. 자다→주무시다 먹다→잡수시다 있다→계시다
E	1-1	-(으)시- is an honorfic marker referring to a subject superior to or older than the speaker. *Some verbs have irregular honorific endings as follows: 있다→계시다, 자다→주무시다, 먹다, 마시다→드시다, 잡수시다, 죽다→돌아가시다

'-(으)시-'는 주어를 높이는 표현으로 분석 대상이 된 모든 교재에서 초급 수준에서 제시되었다. 교재의 설명은 문장의 격식성과 무관하게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지만, 표현의 실제 사용 양상은 상세히 제시되고 있는 편이었다.

분석 결과, 한국어 교재에서는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으)시-' 등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높임 표현이 각각의 문법 항목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적 일관성은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드러났다. 첫째, 높임 표현이 주로 '정중한 말투'나 '격식체' 혹은 '비격식체'라는 범주 속에서 소개되어, 그 사용 맥락이나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언제, 왜 높임 표현을 선택하거나 전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둘째, 실제 담화에서 반말과 존댓말의 전환 양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교재는 여전히 정형화된 상황 설정에 머무르고 있다. 일부 교재에서 반말을 연령이나 위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도, 친밀감에 따른 융통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B 교재 2급)

남자: 벌써 두 시야. 우리 점심 먹자.

여자: 아, 벌써 그렇게 됐어?

남자: 그럼 우리 지금 바쁘니까 피자 시켜 먹을까?

여자: 그래, 좋아.

남자: 무슨 피자 먹을래?

여자: 글쎄, 불고기피자 어때?

남자: 난 불고기를 좋아하는데 불고기피자는 별로 안 좋아해.

여자: 그럼 치즈피자 시키자. 내가 주문할게.

(B 교재 5급)

여자: 요즘 한창 기업들마다 사원 모집하던데요.

남자: 으응, 나도 요즘 여기저기 원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느라 정신없어.

여자: 저도 취직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여요. 제가 아는 선배는 원서를 50군데나 내고서 겨우 취직했대요.

남자: 너도 미리미리 준비해. 나도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실제 상황이 되고 보니 더 열심히 준비할 걸 하고 후회가 돼.

여자: 선배님은 분명히 좋은 데 합격할 거예요.

남자: 그래. 취직 되면 내가 꼭 한턱 낼게. 아니 두 턱이라도 낼게.

www.kci.go.kr

실제 'B' 교재의 예를 살펴보면, 초급에서 반말인 '해체'를 문법적으로 학습한 후에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친구 사이에서 '해체'를 사용한 대화 상황이 제시된다. 이후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도 선배와 후배 사이의 대화에서 후배는 '해요체'를, 선배는 '해체'만을 사용하여 대화하며 대화 안에서 반말과 존댓말의 전환과 같은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된 다른 한국어 교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째, 선어말 어미 '-(으)시-'나 어휘적 높임 표현(드시다, 주무시다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었지만,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은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나아가 담화 전반에서의 기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심화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즉, 초급 수준에서 제시된 한국어 높임 표현에 대한 내용은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확장된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높임 표현은 일정 수준의 체계성과 반복 학습을 통해 전달되고 있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사용 능력이나 사회언어학적 능력의 배양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말과 존댓말의 선택은 단순히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인식과 그에 대한 언어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상황 맥락에 따라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자료 분석: 영화 〈내부자들〉의 높임 표현 사용 양상

본 장에서는 영화 〈내부자들〉 속 주요 장면을 통해 반말과 존댓말의 전환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영화는 정치인, 언론인, 재벌, 검사 등 다양한 권력 집단이 얽힌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담화 내 언어 사용이 단순한 대화의 수단을 넘어 권력 작용, 심리적 압박, 전략적 유대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사례가 풍부하게 나타난다. 영화 속에서 사용된 반말과 존댓말의 역할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담화 상황에서 언어 선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3.1. 위계 확립과 전복(顚覆)을 위한 반말과 존댓말의 사용

이강희가 『조국일보』 편집국장에게 발화하는 장면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반말이 권력 전시와 위계 재구성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공식 회의라는 공적 공간에서 이강희는 처음에는 존댓말로 응대하다가, 편집국장이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려 하자 돌연 반말로 전환한다. "이봐, 김 기자. 니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라는 대사는 반말을 통해 편집국장을 '부하 직원'으로 위치시키고, 자신의 언론 내 권력과 영향력을 재확인시킨다. 특히 이 대사는 이강희가 '편집국 회의'라는 집단적 공간을 '개인적 독대'의 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언어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장면 후반부로 갈수록 회의는 점점 1:1 상황으로 축소되며, 언어적 상하 관계는 더욱 확고해진다. 이는 반말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권위의 재확립과 사회적 거리 조정에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이강희 "미래자동차가 없으면 넌 그 자리에 단 하루도 못 있어. (…중략…) 내 말이 틀렸냐? (…중략…) 이제 헷또가 팍팍 돌아가?"

편집 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이 장면은 공식 회의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조차 반말이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됨을 보여 준다.

www.kci.go.kr

3.2. 협박, 위협, 정보 획득을 위한 반말과 존댓말의 전환

검사 우장훈이 피의자인 이강희를 심문하는 장면에서는 반말이 강압과 위협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채 취조를 시작하지만, 이강희가 비자금 관련 진술을 거부하거나 우회하려 할 때마다 언어가 급격히 공격적으로 바뀐다. 대표적으로 "밑창까지 탈탈 털려서 콩밥 처먹어 봐야 정신 차릴래?"라는 대사는 반말과 협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정보 획득을 위한 언어적 압박 전략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와 유사한 언어 전략이 이후 감찰 검사에 의해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우장훈 검사가 석명관의 자살 사건으로 대검찰청에서 취조받을 때도 취조관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상대(우장훈)를 협박했다. 처음 감찰 검사는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듯했다. 이러한 최초의 태도는 존댓말의 사용으로 확인된다.

감찰 검사 "취조 과정에서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습니까?"

감찰 검사의 취조는 강압과 협박 유무를 따지고 있지만, 여기서 강압이나 협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강압이나 협박'이 아니라, 그 정도가 극심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강압이나 협박'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사들은 늘 이 강압과 협박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도 이상의 강압이나 협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강압과 협박은 부재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우장훈 검사는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러자 감찰 검사의 말투와 어조가 바뀐다. 그때까지는 동료를 대하는 태도였다면, 그 이후에는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반말과 욕설이었다.

감찰 검사 "야, 우장훈 검사! 당신 때문에 지금 검찰이 도매급으로 개쪽이 팔렸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씨발. 아주 끝까지 잘 나셨구만. 최소한 잘못했다는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야. 너 대검이 우스워? 밑창 한번 탈탈 털어줘?"

감찰 검사 역시 우장훈에게 "야, 너 대검이 우스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검사 집단 내에서 반말과 욕설이 일종의 '통제 담화(controlled discourse)'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 내에서 반말이 권위의 수단일 뿐 아니라 내부 권력 질서 유지를 위한 도구로도 활용됨을 보여준다.

한편, 이와 반대로 존댓말이 협박이나 위협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조 상무가 안상구와 박 사장을 고문할 때는 존댓말을 병행해 사용하는데, 이는 존중의 표현이 아니라 위협과 공포 조성을 위한 전략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 장면에서 힘의 관계는 당연히 조 상무에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이 장면들에서 조 상무는 자신이 고문을 가하는, 다시 말해 자신보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안상구와 박사장에게 반말과 존댓말을 함께 사용한다.

(안상구 고문 장면)

조 상무 "안상구 사장, 사장 사장 캐 주니까니 다 똑같은 사장으로 비요? 사이즈가 다르잖아. 청소를 시켰으면 청소만 해 주면 되지 왜 쓰레기를 훔칠라 카노요."

안상구 "도청했나?"

조 상무 "복사본도 있어예? (중략) 우리 상구 씨 인자부터 바보로 삽시다잉."

(박 사장 고문 장면)

조 상무 "왜? 뭐 할 말 있어요?" (몰래카메라 영상 확인 후) "안상구 어디 숨었노?"

www.kci.go.kr

조 상무는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사용하면서 상대에게

신체적 위협만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조 상무와 안상구의 대화에서는 오히려 안상구가 상대 높임 화계에서 가장 낮은 반말인 '해라체'를 사용하고, 조 상무는 '해요체'와 '하오체' 심지어 호칭 표현인 '씨'를 사용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의 형식과는 무관하게 조 상무의 발화는 상대에게 무례하고 공포스러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박 사장을 고문하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조 상무는 박 사장에게 안상구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고문을 자행했고, 반말과 존댓말을 함께 사용하며 박 사장의 입을 열게 하였다. 이때 사용하는 존댓말은 존중의 의미가 아닌 위협과 공포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3.3. 관계의 단절 또는 거리 조절을 위한 존댓말 사용

우장훈이 안상구를 면회하는 장면에서 우장훈은 과거 동지였던 안상구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그들의 관계가 전환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전까지 반말로 소통하던 그들에게 "몸조리나 잘해요."라는 말은 외형적으로는 예의를 갖춘 표현이지만, 그 내면에는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니라는 심리적 거리 두기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앞서 우장훈이 안상구를 구해 준 뒤 모텔에서 눈을 뜨는 장면에서, 반말을 하는 우장훈을 나무라던 안상구의 모습과 대비된다.

(안상구가 모텔에서 깨어나는 장면)

안상구 "그 깡패 새끼가 씨발 손모가지 하나 잘렸다고 그렇게 싸움을 못하냐? 너는 나 아니었으면 골로 갈 뻔했어."

우장훈 "이 싸가지하고는 어린놈의 새끼가, 씨."

안상구 "이 씨발, 존대하라고? 검사가 뭐, 씨발 뭐, 깡패한테 존대하는 거 봤냐?"

안상구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우장훈이 반말을 하는 것을 나무라지만 이에 우장훈은 검사는 깡패에게 존대를 하지 않는다며 계속 반말을 사용할 것임을 알린다. 이 장면에서 안상구와 우장훈은 아직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후 우장훈이 안상구를 면회하는 장면에서는 우장훈의 존댓말 사용을 통해 변화된 둘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우장훈이 안상구를 면회하는 장면)

안상구 "뭔 일 있어?"

우장훈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몸조리나 잘해요."

안상구 "어이, 나한테 지금 '요'자 붙였어?"

우장훈의 존댓말 사용에 안상구는 "어이, 나한테 지금 '요'자 붙였어?"라고 반응하며, 말투 변화가 관계 재조정의 신호임을 즉시 인지한다. 이 장면은 존댓말이 반드시 상하 관계나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 거리감이나 관계 단절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존댓말은 단순한 공손함의 표현이 아닌,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거리 조절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3.4. 위기 회피와 관계 복원을 위한 화법 조율

이강희는 5인 편집 회의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힘을 과시했지만, 편집국장과 독대 시간이 되자 더욱 분명하게 자기 입장과 행동 수칙을 강요했다. 그러자 편집국장은 이강희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편집국장이 자기가 이강희의 수하이며 이강희가 최종 결정권자임을 인정하자("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이강희 역시 돌변한다. 그는 어색한 당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다시 선어말 어미 '-(으)시-'가 들어가는 존댓말로 돌아간다("괜한 억하심정 갖지 마시고").[9] 이어 이강희는 외래어를 혼합한 화법을 구사한다. "아이참, 이거 어색하게. 다

9 문장의 종결어미 형태는 '해체'지만 선어말 어미 '-(으)시-'의 사용은 상대를 더 이상 하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ww.kci.go.kr

잘해 보자고 그러는 거니까 괜한 억하심정 갖지 마시고. (사이) '화이또'. (사이) '다이죠부요'"라는 대사는 상황을 유쾌하게 마무리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강희 "미래자동차가 없으면 넌 그 자리에 단 하루도 못 있어. (…중략…) 내 말이 틀렸냐? (…중략…) 이제 헷또가 팍팍 돌아가?"

편집 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이강희 "아이참, 이거 어색하게. 다 잘해 보자고 그러는 거니까 괜한 억하심정 갖지 마시고. (사이) '화이또'. (사이) '다이죠부요'"

편집 국장 "예, '화이또', '다이조부데스'"

이러한 표현은 화자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대화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위협이나 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화법이다. 이강희는 일본어를 섞어 말함으로써 일종의 유희적 언어 효과를 부여하고, 공식적·위계적 관계 속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한다.

또한, 편의점 앞에서 이루어진 방 계장과 우장훈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방 계장은 우장훈에게 지금 일에서 이만 빠지겠다는 말을 전하고 우장훈은 이에 "그럴래요? 그래요, 그럼."이라고 답 하지만 이내 한국철강 내사 때의 이야기를 꺼내며 방 계장을 압박한다.

방 계장 "전 빠지겠습니다."

우장훈 "그럴래요? 그래요, 그럼."

방 계장 "아, 예."

우장훈 "근데 우리 계장님 예전에 그 한국철강 내사받을 때 그, 총무부장이랑 밥 한 그릇 먹었죠? 맛있었어요?"

방 계장 "아, 거기요? 맛있어요. 예 (…중략…) 아, 진짜 밥만 먹었어요."

우장훈 "어쨌든 그놈의 그 학연, 지연이 사람 여럿 죽인다니까. 그래서 안상구는 좀 어때요?"

방 계장 "아직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검사님, 저 정말 밥만 먹었든요?"

우장훈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좀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지 뭐."

우장훈은 방 계장에게 존댓말로 은근한 회유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만 빠지겠다'는 방 계장의 말을 무시한 채 "그래서 안상구는 좀 어때요?"라고 다시 일 이야기를 꺼낸다. 이에 방 계장이 대답하며 계속 함께함을 확인하게 된 우장훈은 "알았으니까 좀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지 뭐."라며 반말로 살짝 어색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유머와 연대감을 동원한 언어 전략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다.

3.5. 친교를 가장한 무례한 대화자의 비 인격성을 드러내는 반말 사용

장필우와 이강희는 표면적으로는 둘도 없는 협력자이자 오랜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형성된 냉정한 동맹 관계임이 대화 장면을 통해 드러난다. 안상구가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장필우는 돌연 태도를 바꾸며 이강희에게 무례한 어사를 퍼붓는다. "강희야"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친근감을 연출하는 동시에, 그는 '해라체'와 '해체'의 반말을 혼용하여 이강희를 노골적으로 하대한다. 이는 겉으로는 친교의 언어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위계적 폭력과 인격적 억압이 드러나는 언어 전략이다.

장필우 "강희야, 니가 싼 똥이니까 니가 치워라. 난 모른다. 안상구 땜에 잘못되면 나 혼자 안 죽는다. 알잖아?"

이강희 "알지. 아니까 내가 지금까지 니가 싼 똥 치워 주

www.kci.go.kr

고 니 똥구멍도 닦아 줬잖아."

장필우 "그러니까, 계속 똥구멍 좀 닦아 주고 똥도 치우고 그래야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지, 응? 어차피 인생의 주인공은 다 정해져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넌 내 뒤에서 평생 똥이나 좀 닦아 줘."

이 장면에서 이강희 역시 맞대응하듯 장필우의 행적을 비꼬는 내용을 반말로 응수하는데, 이들의 대화는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권력관계 속 비인간적 협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반말은 일반적으로 친밀함이나 동등한 관계에서 사용되지만, 이 장면에서는 친밀함의 외피를 쓴 채 타인을 비하하고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이들의 관계가 진정한 신뢰나 우정이 아닌, 권력과 이해를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동맹임을 드러낸다. 결국, 여기서 반말은 친교를 가장한 언어적 위장 수단이자, 상대방을 비인격화하는 폭력적 도구로 사용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영화 〈내부자들〉에 나타난 반말과 존댓말의 사용은 단순한 높임 표현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위계, 심리적 전략, 관계의 조정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본 장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반말과 존댓말은 고정된 상하 관계의 표현이 아니라, 상황과 목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되며, 권력의 재현 혹은 도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편집국장에 대한 이강희의 반말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언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협박이나 압박 상황에서 반말은 강제력과 위협의 도구로 작용하고, 때로는 존댓말조차도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 형식보다 발화의 의도와 맥락이 화자의 사회적 위치나 감정 상태를 판단하는 데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존댓말은 관계의 단절이나 거리 조절, 위기를 완화하려는 전략으로도 사용된다. 이는 언어가 단지 공손함의 표현에 머물지 않고, 심리적 거리 조절의 도구로서 유의미하게 기능함을 보여 준다. 특히 '친밀함을 가장한 반말'과 '예의를 갖춘 거리 두기 존댓말'의 사용은 담화 상황에서 높임 표현 선택의 전략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적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이와 같은 언어 전환은 특정 장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다양한 권력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높임 표현 교육은 단순한 문법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담화 맥락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함께 다루어야 함을 보여 준다.

4. 교육적 적용 방안

현실을 반영한 영화, 특히 〈내부자들〉과 같은 작품은 반말과 존댓말의 실제 사용 양상을 학습자가 체감하고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 언어 자료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영화와 같은 시각 매체는 대상 문화의 행동, 태도, 그리고 가치를 전달하는 데 유용하며, 학습자는 이러한 매체를 통해 실제 상황과 상호작용을 맥락 속에서 직접 목격하는 효과"[10]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영화나 TV 프로그램과 같은 시각 매체는 학습자의 실용적 인식을 높이는 교육적 도구로 흔히 사용되는데, 이러한 자료는 교과서 대화에서는 종종 누락되는 맥락적, 상호작용적 단서를 통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11]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의 경우 실제 담화 상황을 그대로 옮기 수 없는 교육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높임 표현의 다양한 사용 양상을 제시하는 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화와 같은 실제성이 높은 자료

10 Omaggio Hadley, A.,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3rd ed.), Heinle & Heinle, 2001, p.357.

11 Taguchi, N., "Teaching Pragmatics: Trends and Issues",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1, 2011, p.295.

www.kci.go.kr

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들에게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생동감 있게 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에서 영화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Judd[12]는 화행 교수에 있어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교수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화행 분석(Teacher Analysis of Speech Acts)' 단계에서 교사는 특정 화행의 언어적 특성과 사용 맥락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소개한다. 둘째, '인지적 자각 촉진(Cognitive Awareness Skills)' 단계에서 학습자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의 화행 사용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언어적 표현과 사회적 규범의 차이를 인식한다. 셋째, '수용 및 통합 기술 개발(Receptive/Integrative skills)' 단계에서 학습자는 실제 대화나 상황을 담은 비디오나 영화를 통해 화행의 사용 방식을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 사용에 통합한다. 넷째, '통제된 생산 연습(Controlled Productive Skills)' 단계에서 학습자는 특정 화행을 연습하고,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표현을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통합 연습(Free, Integrated Practice)' 단계에서 학습자는 실제 상황을 모방한 역할극이나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화행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본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화용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며, 시청각 자료는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강화하는 데 유효한 도구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모형을 제안한다.

〈그림 1〉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적용 모형**

12 Judd, E. L., "Some Issues in the Teaching of Pragmatic Competence",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E. Hinkel, É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154.

먼저, '제시' 단계에서 교사는 수업에서 사용할 영화 장면을 선정하고, 인물 간 관계, 대화 상황, 주요 내용 등을 학습자에게 설명한다. 이어 학습자들은 해당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이 사용할 높임 표현을 예측하며 언어 사용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다음으로 '관찰 및 이해' 단계에서 학습자는 영상을 반복 시청하며 대화에서 사용된 표현을 관찰한다. 특히 화자의 어조, 억양, 표정 등을 포함한 비언어적 요소도 분석하며, 자신의 가설과 실제 표현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세 번째로, '수용 및 개발' 단계에서는 해당 장면의 대사를 중심으로 인물 간 관계, 감정 변화, 권력의 역학 등을 분석하고, 동료 학습자들과의 토의를 통해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높임 표현의 이유를 파악하여 언어 지식을 내면화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통합한다. 다음으로 '연습' 단계에서는 통제된 상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동일한 상황을 반말 또는 존댓말로 재구성해보는 활동을 진행하며 언어 형식 간 차이를 체험한다. 마지막 '활용' 단계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역할극을 통해 학습자가 주어진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높임 표현을 선택하여 대사를 작성하고 발표함으로써, 언어 사용의 전략적 측면을 적용해 본다. 연습과 활용 단계의 경우 학습자의 수준과 수업의 상황에 따라 통합하거나 자유롭게 다른 과제를 대체할 수 있다. 이를 높임 표현 교육 방안에 적용해 보면 수업의 단계는 〈표 6〉과 같다.

〈표 6〉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수업 단계**

단계	수업 내용
제시	• 영화의 줄거리, 인물 관계, 대화 상황 및 내용 소개 • 인물들이 사용할 높임 표현에 대해 가설 세우기
관찰 및 이해	• 반복 시청을 통한 청취 능력 강화, 화자의 억양, 어조, 표정 분석 • 화면과 텍스트를 통해 가설과 실제 표현 비교
수용 및 개발	• 인물 간 관계나 감정, 권력 변화에 따른 화법 변화 분석 및 토의 • 대사 의미의 맥락적 이해 심화
연습	• 동일 상황을 반말 또는 존댓말로 재작성하여 화법의 미묘한 차이 체험
활용	• 실제 상황을 가정한 역할극 수행 (예: 평소 존댓말을 사용하던 연인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졌을 때의 이별 장면 구성 및 발표)

www.kci.go.kr

이와 같은 수업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단순한 문법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 권력, 감정 등이 얽힌 복합 담화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언어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앞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높임 표현은 주로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며, 학습자는 일정한 상황에서 정형화된 표현을 익히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접근은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기초적인 높임 표현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방식일 수 있으나,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까지 동일한 교육 방식이 지속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담화에서는 동일한 인물 간에도 상황, 감정, 관계의 변화에 따라 높임 표현이 유동적으로 조절되며, 이를 반영하지 않는 교육은 고급 학습자의 전략적 의사소통 능력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인물이나 장면에서 처음 설정된 말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현실 언어 사용의 유동성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고급 수준의 학습자가 한국어를 보다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맥락에 따른 화법 전환과 언어 선택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영화와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은, 교재에서 다루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미묘한 의사소통 상황을 학습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사용의 실제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언어 사용 능력과 사회언어학적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영화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재현하는 활동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높임 표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의미한 방법이라 본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실제 담화 상황에서 반말과 존댓말을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반말과 존댓말이 단순한 높임 표현을 넘어 사회적 관계, 감정, 권력 등의 요소를 반영하는 언어 사용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둘째,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높임 표현 교육이 문법 중심의 정형화된 설명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담화에서의 유동적인 사용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영화 〈내부자들〉의 대화 분석을 통해 반말과 존댓말이 담화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 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반말과 존댓말은 고정된 상하 관계를 반영하는 형식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 사회적 역할, 심리적 거리, 감정 상태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되고 전환되는 전략적 언어 자원임이 확인되었다. 영화 〈내부자들〉에 나타난 다양한 장면들은 반말이 위계 확립, 협박, 심리적 제압의 수단으로 작용하거나, 존댓말이 관계 단절, 거리 조절, 위기 완화의 전략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언어 형식과 사회적 기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인식을 심화하는 데에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Judd의 화용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제시 – 관찰 및 이해 – 수용 및 개발 – 연습 – 활용'의 5단계로 구성된 수업 적용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실제 영화 장면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언어 형식과 사회적 맥락을 연결지어 사고하도록 유도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실제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높임 표현 교육이 단순한 문법 지식 전달을 넘어서, 언어 사용의 맥락적 적절성과 전략을 통합적으로

www.kci.go.kr

교육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영화 텍스트에 대한 분석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양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제안된 수업 모형의 교육 효과성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반응과 성취도를 측정하는 실험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경희한국어 교재편찬위원회, 『경희 한국어 초급 1 문법』,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_____, 『경희 한국어 초급 2 문법』,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고려대 한국어 1A』,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_____, 『고려대 한국어 2B』,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_____, 『고려대 한국어 3B』,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1A Student's Book』, 투판즈, 2013.

_____, 『서울대 한국어 1B Student's Book』, 투판즈, 2013.

_____, 『서울대 한국어 2B Student's Book』, 투판즈, 201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1-1 (English Version)』,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_____, 『연세 한국어 1-2 (English Version)』,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_____, 『연세 한국어 2-1 (English Version)』,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1-1』, Epress, 2010.

_____, 『이화 한국어 2-2』, Epress, 2010.

Canale, M. &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980.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1965.

Hymes, D.H.,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B. Pride and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Harmondsworth: Penguin, 1972.

Judd, E. L., "Some Issues in the Teaching of Pragmatic Competence",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E. Hinkel, É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Omaggio Hadley, A.,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3rd ed.), Heinle & Heinle, 2001.

Savignon, S. J., *Communicative Competenc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MA: Addison-Wesley, 1983.

Spolsky, B., *Socio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김재원 · 이재근 · 김성찬 역, 『사회언어학』, 박이정, 2021.

Taguchi, N., "Teaching Pragmatics: Trends and Issues",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1, 2011.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Honorific Expressions Using Film

Focusing on the Use of Speech Styles in "Inside Men"

Jo, Hee-Yeong | Kwangju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nhance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sociolinguistic competence by analyzing how speech styles-banmal (informal speech) and jondaetmal (honorific speech)-are strategically used in discourse contexts, and by proposing a pedagogical model for teaching honorific expressions. Curr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primarily presents speech levels within the framework of grammatical rules and formality distinctions, often failing to address actual discourse situations that involve complex social relationships and speakers' strategic intentions.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s the dialogues of the film "Inside Men" to examine how banmal and jondaetmal function in specific discourse context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se speech styles serve as strategic tools for asserting authority, managing social distance, delivering threats or persuasion, and expressing emotions, rather than simply reflecting fixed hierarchical relationships. Based on Judd's model for teaching pragmatic competence, this study proposes a five-stage instructional model "Presentation-Observation & Understanding-Reception & Integration-Practice-Application" using film as a pedagogical tool. This approach offers an educational method that goes beyond grammatical instruction by fostering Korean language learners' ability to make context-sensitive language choices and expanding their awareness of sociocultural contexts and nuances of communication.

Keywords Korean informal speech, Korean honorific speech, Korean honorific expressions, advanced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film

www.kci.go.kr

이 논문은 2025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6월 20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